

News NEWS

2004 치아건강잔치 ‘성료’ “이젠 우리도 환하게 웃어요”

“이젠 우리도 밝게 웃을 수 있어요.”

‘장애인에게 환한 웃음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치협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치아건강잔치가 9월 23일 여의도 63시티 국제회의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치아건강잔치에는 정재규 협회장, 이수성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이사장, 문경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김병묵 경희대 총장 등 내빈들과 치과의사, 특수학교 교사, 장애아동 및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해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치아건강잔치는 국민들에게 장애아동의 치아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정문학교 연주팀의 감미로운 실로폰 앙상블 연주아래 정세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문을 연 1부 시상식에서는 텔런트 정선경 씨가 시상을 돋는 가운데 서울삼성학교, 홀트학교, 은평대영학교가 우수학교 단체상을 수상했다.

건치대상은 한국경진학교 백봉근(12세), 인천성동학교 정

호영(13), 서울농학교 이연우(12세) 학생이 수상했으며, 이 밖에 53명의 학생들이 예쁜이상, 고은이상, 튼튼이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구강보건관리 우수보건교사상은 홀트학교 박선자 씨가 차지했고 올해 처음으로 신설,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한 단체에 수여되는 공로상은 롯데제과 김용택 상무가 수상했다.

이날 시상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55개 특수학교 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구강상태 및 시설, 구강보건관리가 우수한 학교를 선정했으며, 모범 보건교사 및 구강보건 증진에 기여한 단체도 선정했다.

2부 축하공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치과의사 출신 비디오 자기 김형규 씨가 사회를 맡았으며,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져 장애아동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축하공연은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맑음터 핸드벨 콘이어’의 공연에 이어 댄스 전문 팀인 Maximum Crew의 멋진 댄스공연, 바니윤 씨의 신기한 마술쇼 등 신나는 공연이 이어져 장애아동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행사장의 열기를 후끈 달궜다.

치위생과 250 · 치기공과 60명 증원 교육부 2005 입학정원 조정결과 발표

내년도 치위생과 입학정원이 신·증설을 포함해 9개 대학 총 25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또 치기공과의 경우 2개 대학 촍 60명이 증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0월 13일 촍 1만5천 701명 감축을 골자로 한 ‘2005년 대학 입학 정원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치위생과는 증원 60명(삼육간호보건대학 15명, 한양여자대학 15명, 강릉영동대학 30명), 신설 190명(대구과학대학 30명, 전북과학대학 30명, 순천청암대학 30명, 경인여자대학 30명, 신흥대학 30명, 춘해대학 40명) 등 촍 250명이 증원된다.

신설 및 증원 지역은 서울2곳, 대구1곳, 인천1곳, 경기1곳, 울산1곳, 강원1곳, 전북1곳, 전남1곳 등 8개 지역으로 골고루 분포, 해당지역 개원가의 치위생사 인력 수급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250명 증원으로 정재규 협회장은 ‘임기 3년내 치위생과 입학정원 1천명 증원’ 약속의 대미를 장식했다.

정재규 집행부는 지난 2003년 입학정원 30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04년 400명, 2005년에 다시 250명 증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임기동안 촍 950명의 치위생과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진은 취임 후 그동안 국회 의원 면담 등을 통해 ‘국회 다자기’에 주력하는 한편 청와대, 복지부, 교육부, 정당 관계자 등을 꾸준히 만나 치위생사 인력수급 등 치협의 주요 현안문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증원과 관련 “이 같은 현황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대학별로 신청한 인원을 근거로 조정한 결과”라며 “추후 일부 대학과 조정·논의 후 확정된 정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기공과의 경우 충북의 주성대학(30명)과 제주관광대학(30명)이 각각 치기공과를 신설하는 등 전체 60명이 증원될 예정.

이와 관련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이하 치기협)는 ‘치기공과 신설대학 반대’ 성명서를 내고 “매년 1천명이상이 국시에 합격, 현업에 종사하려 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실업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의 경우 인구가 50만 명이고 치기공사가 80명 현업에 종사하는데 매년 30명이 새로 배출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국인 진료·외국 의료인 무제한적 개방 등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치협, 재경부·복지부에 의료 개방 반대 성명서·의견서 제출

치협은 9월 중순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채택한데 이어 10월 초 재경부와 복지부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및 반대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공식 제출,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 요청했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제 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며 “개정안 제23조는 현행대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안’으로 제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개정안 제 23조 1항의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 개정안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국내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 특구의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변질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치협의 의견이다.

치협은 또 “투자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외국자본의 투자로 인해 특구내 세워진 의료기관이 환자를 본국으로 이송, 오히려 합법적인 국부유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아울러 “개정안 23조 6항은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 등이 특구 내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에 한해서만 종사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 경제특구내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외국의료인에 대해 면허와 의학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조직과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료 인력이 의료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유입될 경우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치협은 또 “외국인력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거 실시되는 예비시험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현재 정부정책 차원에서 진행 중인 국내의료계의 정원감축 인력수급 계획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견 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특히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인정은 상호성이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특구내에서 초법적으로 실시하려는 무제한적 개방은 향후 WTO DDA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내국 의료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마취학회 정식 학회로 승인 치협 이사회서 결정 (가칭)치의학상 신설

대한치과마취학회(회장 염광원)가 치협 산하 분과학회로 승인됐다.

또 치의학회가 시상하는 (가칭)치의학상이 신설됐다.

치협 이사회는 지난 10월 12일 회의를 열고 학술위원회의 학회 인준 심의를 통과한 치과마취학회를 정식학회로 인준키로 했으며, 치의학회 이사회서 상정한 (가칭)치의학상 신설을 승인했다. 이로써 치협 산하의 분과학회는 총 21개가 됐으며, 분과학회 신설은 이번 집행부 들어 두번째가 됐다.

특히 지난 89년 치협의 인준을 받은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회장 안창영) 이후 14년만인 지난해 2003년에 대학교순구개열학회(회장 남동석)가 정식 분과학회로 인준받은데 이어 1년만에 새로운 분과학회가 탄생하게 됐다.

치과마취학회는 2001년도에 설립, 학술대회 및 집담회 개

최, 외국연자 초청강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의욕적인 학술활동으로 많은 치과의사들이 모여 현재 21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가칭)치의학상과 관련, 대상 1명과 금상 1명에게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포상키로 했으며,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당해 연도 1년간 SCI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행한 논문 수가 가장 많은 자에게 수상한다.

김종열 부회장은 “임기동안 학회 발전에 힘쓰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학회 자체에서 학문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분과학회 신설을 유도하길 바란다”며 “(가칭)치의학상은 논문과 관련된 상이 새롭게 제정된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를 기회로 치의학회 영문학회지 발간을 위한 저변이 확대되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